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32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문체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권고 일부 수용

김윤철 연합뉴스기자

체육인 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체육인 복지법, 오늘부터 시행... '체육인 전체' 복지 강화

김주희 뉴시스기자

제9회 세계여자청소년 핸드볼선수권 대회

여자핸드볼 우승 김진순 감독 "장한 선수들, 잘 성장하기를"

김동찬 연합뉴스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

'음주운전 사고' 김민석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 "체육인 품위 훼손"

김우종 스타뉴스기자

대법원 판결

'금고형 집행유예' 처벌 뒤 사면된 체육지도자·대법원 "자격 취소 정당"

우철희 YTN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문체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권고 일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쇼트트랙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벌여 여성 체육지도사가 채용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파악하고 지난해 12월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 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회신했다. 이에 더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모성 보호를 위한 제도 실효성도 꾸준히 강화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대한체육회는 성 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제·개정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했으며, 오는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 기준을 명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완전히 수용했으나, 교육부와 문체부는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후보로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는 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체부는 여성 체육지도자의 양적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종목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권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여성 지도자 양성 및 선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체육인 복지법, 오늘부터 시행... '체육인 전체' 복지 강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인 복지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10일에 제정된 이 법은 체육인 공제·장학사업, 원로 체육인 지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보상,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복지 후생비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육인 전체의 복지지원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기존 체육인 복지지원이 메달 수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롭게 제정·시행되는 '체육인 복지법'에서는 선수와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인 전체를 대상으로 촘촘한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퇴직연금 등의 상품을 운영하는 체육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체육인들의 생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에게 장학금을, 은퇴 후 지병이나 생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원로 체육인에게는 의료비·생계비 등도 지원하게 된다"고 보탰다.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든다.

문체부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으면 그 공헌을 인정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고 본인 또는 유족, 가족에게 연금, 의료·교육·취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대표 선수·지도자를 대상으로 경기력 성과포상금을 지급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국내대학원이나 국외 유학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지원금 등을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체부는 체육인 복지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을 연내에 지정할 계획이다. 체육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부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체육인의 근로 실태와 생활 정도 등을 조사하고 5년마다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체육인 징계 이력 확인 제도 확대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의무화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 정비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승부조작 가담 체육인 제재 강화의 경우 승부조작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국내외 운동경기 대회 출전 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여자핸드볼 우승 김진순 감독 “장한 선수들, 잘 성장하기를”

한국 18세 이하 여자핸드볼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은 김진순(43·인천비즈니스고) 감독이 "선수들이 현지에서 적응을 빠르게 해줬다"며 우승의 공을 선수들에게 돌렸다.

11일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끝난 세계여자 청소년핸드볼 선수권대회에서 비유럽 국가 최초로 우승한 우리 선수단은 1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회 결승에서 덴마크를 31-28로 물리친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유럽 팀들을 상대로 8전 전승을 거두는 이번의 주인공이 됐다.

체격과 파워를 앞세운 유럽 핸드볼에 맞서 우리나라는 특유의 빠르기와 패스, 조직력 등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우승이라는 값진 결과를 수확했다.

김진순 감독은 귀국 후 인터뷰에서 "출국할 때만 하더라도 우승보다 색깔과 관계없이 메달을 가져오자는 마음이었다"며 "현지에서 아이들이 빨리 적응했고, 준비한 한국 핸드볼이 잘 맞아떨어져 금메달을 따내 너무 기쁘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현역 시절 2000년 시드니올림픽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김 감독은 "우리 선수들 개인기가 뛰어나고,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김민서(황지정산고) 외에 다른 선수들도 어느 한 포지션에 부족함이 없이 잘 해줬다"고 우승 원동력을 자평했다.

시상식 때 애국가를 부르는 선수들을 향해 지휘하는 동작을 해 보인 김 감독은 "선수들이 흥분해서 그런지 너무 빨리 불려서 제가 저도 모르게 맞춰주느라 그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제 고등학생인 어린 선수들이지만 의젓한 모습에 김 감독도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숙소에서 경기장까지 한 15분 정도 차로 이동하는데 아이들이 어디 동네 시합 가는 것처럼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줘 저도 긴장이 완화될 정도였다"고 기특해했다.

대회 기간 내내 유럽 팬들과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국을 응원했던 장면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에 집중하느라 나중에야 알았다"며 "아무래도 우리가 유럽 팀들과는 다른 핸드볼을 하다 보니 매력을 느낀 것 같다"고 풀이했다.

김 감독은 "몸 푸는 과정부터 달랐는데 우리는 스피드를 내야 하니 스텝과 패스 위주로 워밍업을 하는데 유럽은 뛰는 동작은 별로 없는 것이 차이였다"고 설명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당시 결승에서 덴마크와 승부 던지기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은메달을 획득, 잘 싸우고도 '눈물의 은메달'을 걸었던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 빛대 이번 대표팀이 '리틀 우생순'으로 불린다는 말에는 "너무 영광"이라고 몸을 낮췄다.

김 감독은 "우리 핸드볼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며 "그때 언니들은 더 훌륭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좋은 기운을 받아 계속 성적을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5년 일본 리그에서 득점왕에도 올랐던 김 감독은 "유럽 선수들은 20세 정도 주니어 때 많이 성장한다"며 "우리 선수들도 앞으로 체력을 더 키우고, 서로 협동하는 핸드볼을 꾸준히 연습해서 잘 커나가기를 바란다"고 제자들의 성장을 기원했다.

‘음주운전 사고’ 김민석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 “체육인 품위 훼손”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빚은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이 1년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한 뒤 김민석에 대해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1년 6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또 김민석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차량에 탑승 후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한 정재웅(이상 성남시청),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3명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정재웅에게 자격 정지 1년, 정선교와 정재원에게는 각각 6개월, 2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진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은 선수단 관리 부주의를 이유로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며 지휘봉을 내려놓게 됐다.

김민석은 지난 7월 22일 밤 훈련을 마치고 김 감독의 승낙을 받은 뒤 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와 음주를 했다. 이들 4명은 식사 후 김민석의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당시에는 정재웅이 운전을 했다.

그러나 이후 김민석이 진천선수촌 웰컴센터에서 생일 파티를 하던 박지윤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차를 몰고 정재웅, 정선교와 함께 이동했다. 다시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김민석의 음주운전이 확인됐다.

김성철 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장은 "한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칭찬과 관심을 받았던 선수들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대해 "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선수들의 장래를 보호하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는 않았다. 연맹의 처벌과 별개로 이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도 뒤따를 수 있다. 운동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징계다. 다른 종목과 비교해도 (자격 정지 기간이)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분명한 중징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민석은 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2연속 동메달을 목에 건 빙속 간판이다. 정재원은 베이징 대회 매스스타트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국민들의 많은 응원을 받았다.

YTN

‘금고형 집행유예’ 처벌 뒤 사면된 체육지도자... 대법원 “자격 취소 정당”

체육지도자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나중에 특별사면이 됐더라도 지도자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의 결격 사유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거나 특별사면이 되면 결격 사유가 사라진다고 해도 사유가 발생했던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만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5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문체부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A 씨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과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을 취소했는데, 1심과 2심 재판부는 특별사면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됐다면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리바운드 비결요? 맞기 싫어서 더 죽어라 했습니다"

<https://sports.v.daum.net/v/20220816090007825>

오홍일 체육회 사무처장 부당해고 맞다

<https://www.ulsanpress.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339>

'전국 1호' 반다비체육센터...광주 북구 18일 정식 운영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2140600054?input=1195m>

"우린 광복절 체육대회 합니다" ...해남군 화산면 해방이후 매년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772650>

국민체육진흥공단, SPORTS-UP 챌린지 시상식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770571>

대한육상연맹, 우주인스포츠와 마라톤 생활체육 활성화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1080300007?input=1195m>

광양국민체육센터에 장애인 e스포츠센터 개관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064200054?input=1195m>

대한체육회, 2022 스포츠인 종합 교육과정 운영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09_0001972668&cID=10501&pID=10500

광주시체육회, 'Sports Again 1·1·1' 활동 기지개

<http://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858882>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